

연합뉴스

'착각'을 불러일으키는 미술품

2015/06/04 08:22:04





[앵커]

즐거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 관객을 찾아갑니다.

마치 살아있는 듯한 조각품과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듯한 자수 작품이 그 주인공인데요.

신새롬 기자가 소개합니다.

<함경아 / 작가> "디지털 세상에서 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가

장 반대이고 아날로그적, 노동집약적인 매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땀한땀 놓은 자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"

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이 마치 사람 같은 모습으로, 또 생각지 못한 제작 과정을 담아 관객에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.

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

연합뉴스TV 제보:02-398-4409, yjebo@yna.co.kr

URL: <http://www.yonhapnews.co.kr/video/2602000001.html?cid=MYH20150604002800038&input=1825m>